

##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숙희(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전명희(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공동체리더십 훈련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H 대학교의 기독교 대학생 499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가족관계문제와 가치관 문제가 자살생각 정도를 가장 많이 예측하였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정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위험요인으로서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보호요인으로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정도는 부분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 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동체리더십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자살생각이 부분적으로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화, 지도자화, 제자화를 목표로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는 공동체리더십 훈련 참여도가 자살생각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공동체리더십 훈련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체리더십 훈련과 같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체계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기독교 대학 차원에서 우울과 같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스트레스, 자살생각, 우울, 공동체리더십 훈련

\* 본 연구는 2010년 진행된 한동대학교 공동체리더십 교과목 개발연구(교내연구) 데이터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 2011년 5월 8일 접수, 6월 21일 수정, 6월 21일 게재확정.

## I. 서론

최근 국내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자살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학생의 자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청년들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가족, 학교 및 사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지난 2011년 4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230명 정도의 대학생이 자살을 하였다(중앙일보, 4월 11일자). 이는 초·중·고 학생의 자살평균인 150명보다 훨씬 많은 수로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대학생 자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각 대학의 학생 정신건강 상담 활성화 및 현행 대학들이 운영하는 지도 교수제를 한층 강화해서 학생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살은 충동적인 일회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위기 과정을 거쳐 간다(Heeringen, 2001).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한 사회 및 환경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스트레스 정도는 자살문제를 예측하는 매우 주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서적 지지체계가 부족할 때에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손정남, 2007; 유상미·이승연, 2008; 하정희·안성희, 2008). 또한, 정신건강적 문제로서 특히 우울과 불안, 충동성 등이 자살의 주요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다(Konick and Gutierrez, 2005; Yang and Clum, 1994; Baumeister, 1990). 현재까지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유력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정도, 이전 자살 시도 경험, 정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무망감 등을 들 수 있다(김정진, 2009; 하정희·안성희, 2008; 손정남, 2007).

이러한 자살생각의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에 신앙심(religiosity)은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Abdel-Khalek and Lester, 2007; Zhang and Jin, 1996). 즉,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며, 현재의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뿐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 취약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서로 공유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심상영, 2007; 유영권, 2007). 반면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 기독교인의 자살문제는 수치스럽거나 드러내놓고 다루어지기 어려운 일로 여겨지므로 기독교인의 자살통계는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살생각의 위기에 있다 해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대학생의 자살관련 연구 중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 종교의 유무에 따른 자살생각 정도를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김효정·정미애, 2010), 기독교 대학생들이 갖는 자살생각 실태나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생들도 개인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들의 자살생각 정도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생각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H 대학교의 기독교 대학생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서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되는지와 인성과 영성교육의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H 대학교의 공동체리더십 훈련이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서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독교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 정도는 어떠하며,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자살생각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
- 연구문제 2. 기독교대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 연구문제 3. 기독교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리더십훈련의 참여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듯이 스트레스는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Paykel et al., 1975; Brent et al., 1993; 홍영수, 2004).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의하면 인간의 내외적 요인 중 스트레스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위험 요인들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 촉발사건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는 스트레스 자체가 자살행동을 유발 한다기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대처를 가져오는 개인내적 역동이 중요함이 강조된다(김의철 등, 2010; 하정희·안성희, 2008; 유상미·이승연, 2008). 청소년 자살사건의 신문 기사를 분석한 김기환과 전명희(2000)의 연구결과는 촉발적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력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자살에의 취약성 요인 정도를 살펴볼 때에, 청소년 자살은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일 경우 작은 촉발사건에도 반응한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 사건은 보통 사랑하는 이의 사망, 질병, 상실, 해고 등의 중대한 생활사건(negative life events)과 외로움, 성적하락, 가족간의 싸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문제들(minor daily hassles)로 나눌 수 있는데, 중대한 생활 사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사건도 우울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준다(Dixon et al., 1991; 조하·신희천, 2009).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성적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박재연·정익중, 2010; 김기환·전명희, 2000; Son & Kirchner, 2000),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살생각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나 어떠한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에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업 및 진로문제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자살생각의 예방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관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김효정·정미애, 2010; 민윤기, 2005)

## 2.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들

현재까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주목받는 요인은 우울이다 (Baumeister, 1990).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면서 무기력감과 무가치감,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정서상태를 말한다(김재엽 등,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손정남(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95), 스트레스(.68), 회피 중심적 대처전략(.59) 순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판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전체모형의 18.8%를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경로를 파악한 박재연과 정익중의 연구(2010)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며, 스트레스는 우울의 예측변수가 되며, 자살생각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왔다(Lewinsohn, Hoberman & Rosenbaum, 1988; 김재엽 등, 2009; 우채영 등, 2010; 김미례, 2006; 홍영수와 전선영, 2005). 즉, 우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스트레스-취약성 인지모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사건은 기존의 개인이 가지던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삶의 의욕저하, 무기력감, 불면증 및 식욕감퇴 등의 우울증상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코닉과 구티레즈(Konick & Gutierrez, 2005)의 자살예측 요인 연구에서도 우울증상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애에서 상실적이고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에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 특히 우울과 무망감 등을 깊이 경험하고 있을 때에 자살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이 자살자들이 자살 직전에 보이는 정서상태일 수는 있으나 자살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의 감소 외에도 문제해결능력 증진이나 사회적 지지 등의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다(De Leo, 2002). 즉, 스트레스가 우울을 일으키고 그 결과 자살생각이 증가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를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 2)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들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자살이 스트레스 사건을 통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나 예방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의 중요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작용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들 수 있다.

먼저, 신앙심(religiosity)은 자살생각을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김효정·정미애, 2010). 쿠웨이트와 미국의 대학생들을 비교한 압델-칼렉과 레스터(Abdel-Khalek & Lester, 2007)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보다 건강하며, 자살생각에 있어서도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여대생의 자살생각정도를 비교 연구한 장과 진(Zhang & Jin, 1996)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심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하와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는 삶의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의미를 재해석해본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보호요인이 되나,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인 침체가 생기거나, 삶에 대한 무망감을 느끼게 되면 신앙인이라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인데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었다(장선희·이미애, 2010; 우채영, 2010; 김미례, 2006). 양과 클럼(Yang & Clum, 1994)의 미국 내 아시아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 무망감, 그리고 자살사고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모두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70개 대학의 26,000명 이상을 조사한 대학생 자살연구에서 보면, 응답자의 6%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자살생각을 가졌으나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이들의 응답에서 자살하지 않도록 한 보호요인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나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77%),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56%),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34%) 등의 순으로 응답 되었다(Drum et al, 2009). 즉, 가족과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신앙적 신념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 3. 사회적 지지로서의 공동체리더십훈련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및 의미 있는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리더십 훈련을 긍정적 관계공급과 사회적 지지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동체리더십 훈련에 대하여 간단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H 대학의 공동체리더십 훈련은 1년 단위로 한 교수 당 30~35명의 학생들이 학년 및 전공별로 다양하게 섞여서 매주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의 시간을 공유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수업으로서의 공동체리더십훈련은 6학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그 밖에도 학생들은 동일 팀원들과 기숙사 방을 공유하게 되고, 공동생활, 노동, 사회봉사, 토론, 인간관계 훈련, 성경 공부 등 교과로 정해진 시간 외의 활동(extra-curricula)을 진행하게 된다. 이 훈련의 지침서에 의하면 이 훈련의 주요 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봉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공동체화, 제자화, 리더화로 설명할 수 있다(한동대학교, 2007). 이 훈련은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주로 각 팀의 담임교수는 멘토로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이외에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함께 살며 배우는 신앙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숙희와 전명희(2009)의 이 공동체리더십 훈련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 훈련은 집단으로서 대인관계를 학습하는 장이 되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서 서로 힘을 얻는 이타심을 경험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이 참여도와 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공동체리더십훈련의 참여정도는 학생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자신이 얼마나 팀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적응이나 생

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윤과 허르시(Yoon & Hirsh, 2010)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역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H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리더십 훈련에의 적극적 참여가 과연 자살생각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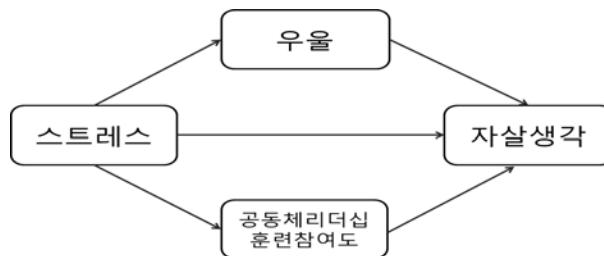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H 대학교 2010년 2학기 공동체리더십훈련을 참여하는 학생들 중 5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0개의 한국인 팀 중 무작위로 26개 팀을 표본추출하고 공동체리더십훈련시간에 공동체리더십훈련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조사응답자 총 588명 중 기독교인 49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스트레스 정도이고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정도이며, 우울정도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매개변수이다. 우울정도가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보호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 3. 조사도구

#### 1)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전경구 외, 2000)는 총 50개의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부터 ‘거의 그렇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척도 내 하위척도는 취업, 이성친구와의 관계, 경제적 상황, 친구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생각, 학업 성취 등과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해본 결과 경제 문제(Cronbach  $\alpha$  =.85, 7문항), 이성과의 관계(Cronbach  $\alpha$  =.88, 6문항), 교수와의 관계(Cronbach  $\alpha$  =.83, 6문항), 가족과의 관계(Cronbach  $\alpha$  =.85, 6문항), 장래 문제(Cronbach  $\alpha$  =.81, 8문항), 가치관 문제(Cronbach  $\alpha$  =.79, 5문항), 학업 문제(Cronbach  $\alpha$  =.75, 7문항), 친구와의 관계(Cronbach  $\alpha$  =.76, 5문항)의 하위척도 모두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2) 우울정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건강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 Goldberg, 1978))의 한국판 GHQ로 신성인(2001)에 의해 번역되고 표준화된 20문항을 가진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 불안 장애, 신체적 증상 및 사회적 기피 등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울정도는 이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 검사-재검사 상관도( $r = .87$ )가 높았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와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 .89 \sim .91$ ) 또한 높았다(신성인, 2001).

#### 3)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H 대학교 학생들 6학기까지 매학기 공동체리더십 훈련 수업으로 1학점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기숙사나 자율적 모임 등 팀별로 다양한 공동체모임이 있으므로 개별 학생들마다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 질문은 전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1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2점, 보통이다=3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살생각

자살생각 및 심각성의 척도는 백의 자살생각척도(Beck Scale for Suicide, SSI: Beck et al., 1979)와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에서 이용한 14문항을 선정하였다. ‘전혀 없다(1)’에서 ‘많이 있다(5)’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 5) 통제변인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성별(남성=0, 여성=1),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스트레스정도, 우울정도,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스트레스하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과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베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세 단계의 검증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측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변인을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으면 완전매개로 볼 수 있으며,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유의하더라도 2단계에 비해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로 볼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한지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배경

조사 대상자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286명(57.3%), 여학생이 213명(42.7%)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158명(31.7%), 2학년이 155명(31.3%), 3학년이 139명(28.1%), 4학년은 44명(8.9%)이었다. 공동체리더십훈련 의무 이수 학기가 6학기이기 때문에 4학년의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가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다. 참여하는 제1전공을 보았을 때 인문계열 전공자가 222명(45.5%), 이공계열은 111명(22.7%)였고, 전공을 정하지 않은 1학년들이 소속되는 GLS(Global Leadership School, 1학년)학부 학생이 155명(31.8%) 이었다.

<표1>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N (%)
성별	남자	286 (57.3)
	여자	213 (42.7)
학년	1학년	157 (31.7)
	2학년	155 (31.3)
	3학년	139 (28.1)
	4학년	44 (8.9)
제1전공	인문사회계열	222 (45.5)
	이공계열	111 (22.7)
	GLS(1학년)	155 (31.8)

### 2.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및 자살생각의 정도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정도, 우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아래의 <표2>와 같다. 먼저,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서는 본 척도의 중간값(2.32점)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평균 1.85점),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는 경제문제와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자살생각 정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독립변인	경제문제	1.89	.75	1	4	.63(.11)	-.17(.23)	
	이성과의 관계	1.46	.54	1	4	1.34(.11)	1.73(.24)	
	교수님과의 관계	1.56	.52	1	4	1.0(.12)	1.07(.23)	
	가족과의 관계	1.38	.51	1	4	1.59(.12)	2.97(.23)	
	장래 문제	2.33	.58	1	4	.08(.12)	-.12(.24)	
	가치관 문제	2.16	.69	1	4	.21(.12)	-.38(.23)	
	학업 문제	2.37	.56	1	4	-.09(.12)	.03(.23)	
	친구와의 관계	1.37	.48	1	4	1.56(.12)	2.70(.23)	
	스트레스 (전체)	1.85	.37	1	3.64	.51(.12)	1.41(.24)	
매개 변인	위험 요인	우울정도	11.68	2.55	5	19	-.06(.11)	.24(.22)
	보호 요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3.31	.99	1	5	-.23(.11)	-.32(.22)
종속변인	자살생각	22.64	6.72	15	63	2.04(.12)	5.56(.23)	

조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중간값(12점)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1.68점),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중간값(3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평균 3.31점) 전반적으로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정도는 본 척도의 중간 값(39점)보다 낮은 점수(평균 22.64점)를 나타냈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8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며(Kline, 2005)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생각에 대해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 자살생각이 약간 있는 집단, 자살생각이 많은 집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교차표는 아래의 <표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이 전체의 90.1%(393명)이었고,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은 10% 정도 되었다. 이 중 약간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8.3%(36명), 자살생각이 많은 학생들이 1.6%(7명) 였다.

〈표3〉 성별과 자살생각 정도에 따른 집단간 교차표

단위 : 명(%)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자살생각 정도	자살생각 없음	228(58%)	165(42%)	393(90.1%)
	자살생각 약간 있음	19(52.8%)	17(47.2%)	36(8.3%)
	자살생각 많이 있음	5(57.8%)	2(28.6%)	7(1.6%)
전 체		252(57.8%)	184(42.2%)	436(100%)

$\chi^2=9.13$ ,  $df=2$ ,  $p=.634$

### 3. 스트레스, 우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r=.298$ ), 우울과 자살생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129$ ).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가족과의 관계( $r=.356$ ), 친구와의 관계( $r=.304$ ), 교수님과의 관계( $r=.240$ ), 이성과의 문제( $r=.238$ ), 가치관 문제( $r=.225$ ), 경제문제( $r=.154$ )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문제와 장래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친구와의 관계( $r=-.172$ ), 가치관 문제( $r=-.159$ ), 가족과의 관계( $r=-.114$ ), 교수님과의 관계( $r=-.109$ )요인이었고, 경제문제, 이성과의 문제, 장래문제, 학업문제 요인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499$ ), 스트레스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127$ ).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와 자살생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r=-.143$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4. 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정도

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5>와

같다. 입력방식과 단계입력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가족과의 관계가 자살생각정도를 가장 많이 예측하였고( $\beta=.334, p<.001$ ), 두 번째는 가치관 문제가 자살생각 정도를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2, p<.01$ ).

〈표4〉 스트레스, 우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674**											
(3)	.592**	.285**										
(4)	.601**	.320**	.300**									
(5)	.645**	.393**	.432**	.431**								
(6)	.612**	.230**	.221**	.153**	.179**							
(7)	.698**	.305**	.307**	.327**	.273**	.526**						
(8)	.599**	.316**	.171**	.193**	.156**	.400**	.472**					
(9)	.638**	.300**	.481**	.498**	.633**	.142**	.340**	.163**				
(10)	.499**	.231**	.281**	.260**	.227**	.343**	.517**	.302**	.320**			
(11)	-.127**	-.008	-.027	-.109*	-.114*	-.041	-.159**	-.027	-.172**	-.049		
(12)	.298**	.154**	.238**	.240**	.356**	.074	.225**	.066	.304**	.279**	-.143**	

주1) (1) 스트레스 (2) 경제문제 (3) 이성과의 문제 (4) 교수님과의 관계 (5) 가족과의 관계 (6) 장래문제  
 (7) 가치관 문제 (8) 학업문제 (9) 친구와의 관계 (10) 우울 (11)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 (12) 자살  
 주2) 유의수준

\*  $p < .01$ , \*\*  $p < .001$

〈표5〉 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정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살생각: B( $\beta$ )	
		입력방식	단계입력방식
스트레스 요인	경제 문제	-.307(-.031)	
	이성과의 관계	.679(.049)	
	교수님과의 관계	.833(.059)	
	가족과의 관계	4.104(.276)***	4.970(.334)***
	장래 문제	-.517(-.040)	
	가치관 문제	1.431(.131)*	1.334(.122)**
	학업 문제	-.615(-.047)	
	친구와의 관계	.863(.056)	
R <sup>2</sup> (Adj R <sup>2</sup> )		.164(.149)	.151(.147)
F		10.979***	40.292***

주 : \*\*\*  $p < .001$ , \*\*  $p < .01$ , \*  $p < .05$

## 5. 우울과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 1)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베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방식으로 표준화 회귀 계수인 베타( $\beta$ )계수의 절대값의 변화를 통해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배경인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정도를 매개변수로, 자살생각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6>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 정도에( $\beta = .497, p < .001$ )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1). 둘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01, p < .001$ ). 즉,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2).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와 매개변수인 우울정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우울정도가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beta = .201, p < .001$ ), 스트레스 요인도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201, p < .001$ ) 이는 2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모델3).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st Statistic=2.101, Std. Error=0.05,  $p < .05$ ). 우울정도는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 정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정도는 자살생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대학생들의 우울정도가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정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자살생각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6〉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의 매개 효과

항목		우울(모델1)		자살생각(모델2)		자살생각(모델3)	
		$\beta$	t	$\beta$	t	$\beta$	t
인구사회학 적요인	성별	.058	1.449	-.763	-1.119	-.062	-1.400
	학년	-.116	-2.905**	.077	1.719	.101	2.259*
독립변인	스트레스	.497	12.364***	.301	6.716***	.201	3.939***
위험요인	우울					.201	3.913***
상수		5.865***		10.902***		7.419***	
F		56.473***		16.309***		16.448***	
r <sup>2</sup>		.262		.092		.120	

주 : \*\*\*  $p < .001$ , \*\*  $p < .01$ , \*  $p < .05$

## 2)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의 매개효과 검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7>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14$ ,  $p < .05$ ).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낮았다(모델1). 둘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01$ ,  $p < .001$ ). 즉,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2).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와 매개변수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beta = -.116$ ,  $p < .05$ ), 스트레스 요인도 자살생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286$ ,  $p < .001$ ) 이는 2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모델3).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st Statistic=2.083, Std. Error=0.170,  $p < .05$ ).



〈표7〉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의 매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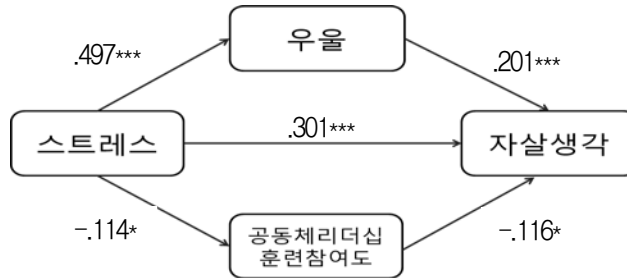
항목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모델1)		자살생각(모델2)		자살생각(모델3)	
		β	t	β	t	β	t
인구사회 학적요인	성별	-.064	-1.385	-.050	-1.119	-.066	-1.469*
	학년	-.202	-4.417***	.077	1.719	.048	1.055*
독립변인	스트레스	-.114	-2.477*	.301	6.716***	.286	6.310***
보호요인	공동체리더십 훈련 참여도					-.116	-2.521*
상수		4.309***		10.902***		15.066***	
F		9.377***		16.309***		13.459***	
r <sup>2</sup>		.052		.092		.108	

주 : \*\*\* p < .001, \*\* p < .01, \* p < .05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 정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자살생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대학생들의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보호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정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자살생각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3) 우울과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의 매개효과

위의 결과(표6, 표7)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정도가, 보호요인으로서의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아래의 [그림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H 대학의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살펴보았고, H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리더십훈련의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 대학교 기독교대학생 중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경미한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전체 조사 응답자의 10%에 해당되었다. 현재까지 미국과 같은 전국적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한 결과가 어느 수준을 반영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기독교인으로서 자살생각을 해볼 만큼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하는 위험집단 학생들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특히 기독교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가족관계문제와 가치관 문제가 자살생각 정도를 가장 많이 예측하였다. 가족관계수준은 자살생각을 예견하는 주요 스트레스 이슈로 언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가치관의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삶의 의미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일 때에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독교대학생들의 우울정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위험요인으로서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는 보호요인으로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정도는 부분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 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동체리더십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자살생각이 부분적으로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화, 지도자화, 제자화를 목표로 소그룹으로 단위로 진행되는 공동체리더십훈련 참여도가 자살생각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킨다는 의미로 공동체리더십훈련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기독교 대학생들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성장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 문제는 학계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계기로 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살방지를 위한 대학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속적이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서의 ‘공동체리더십 훈련 참여도’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보호요인으로서의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H 대학의 경우 삶의 대부분의 공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바, 팀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그룹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교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한 예로 공동체리더십훈련과 같은 인성교육의 장이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살에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에도 우울이라는 문제는 자살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도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상담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한 대학의 기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동체리더쉽훈련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동체리더쉽훈련의 참여정도를 측정하는데 부족함이 많았으며, 실험 연구가 아니기에 실제 참여에 따른 성과로 보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에서 이러한 인성교육방식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개입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독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매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1). 127-152.
-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의철·박영신·김의연·Tsuda Akira·Horiuchi Satoshi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 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6(2). 197-219.
- 김재엽·남석인·최선아 (2009).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 TSL 대처방식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275-308.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사회사업』 32. 413-437.
- 김효정·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민윤기 (2005). “대학생의 자살위험요인 지각과 자살생각 평가.” 『학생생활연구』 31. 31-52.
- 박광배, 신민섭 (200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20-32
- 박재연·정익중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2.69-97.
- 손준남 (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3). 267-275.
- 신성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심상영 (2007). “기독교의 자살관과 그 대책”. 『심성연구』 22(1). 1-15.
-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유상미·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2). 119-136.
- 유영권 (2007). “자살 이해와 대처방안”. 『목회와 상담』 9. 169-192.
-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6(4). 667-685.
- 이현지·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장선희·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은선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 및 자살생각의 관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4(5). 27-47.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5(2). 316-335.
- 정석환 (2004). “자살의 문제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258-285.
- 정숙희·전명희 (2009). “한동대학교 공동체리더십 훈련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동저널』 8. 111-129.
- 조하·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4). 1011-1026.
- 중앙일보, 2011년 4월 11일자
- 하정희·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0(4). 1149-1171.
- 한동대학교 (2007). 공동체리더십훈련: 팀운영지침서-2007년 가을 개정판.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홍영수·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Abdel-Khalek, A. M. & Lester, D. (2007). “Religiosity, Health and Psychopathology in Two Cultures: Kuwait and US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0(5) 537-55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2-352.
- Bonner, R. L. and Rich, A. R. (1988).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A 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8. 245 - 258.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Schweers, J., and Roth, C., (1993). “Firearms and adolescent suicide: A Community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47. 1066-1071.
- De Leo, D. (2002). “Why are we not getting any closer to preventing suicid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 372-473.
- Dixon, W. A., Heppner, P. P., &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51-56.
- Drum, D. J., Brownson, C., Denmark, A. B., and Smith, S. E. (2009). “New Data on the Nature of Suicidal Crises in College Students: Shifting the Paradigm.”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3). 213 - 222

- Heeringen, K. V. (2001). *Understanding Suicidal Behavior: The Suicidal Process Approach to Research, Treatment, and Prevention*. Wiley and Sons.
- Konick, L. C. and Gutierrez, P. M. (2005). "Testing a Model of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181 - 192.
- Lewinsohn, P. M., Hoberman H. M. & Rosenbaum, M. (1988). "A Prospective Study of Risk Factors for Unifor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251-264.
- Paykel, E. S., Prusoff, B. A., and Myers, J. (1975). "Suicide Attempts and recent Life Ev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327-333.
- Son, S., and Kirchner, J. (2000).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Family Physician* 62(10). 2297-2308.
-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127 - 139.
- Yoon, S. & Hirsh, J. (2010). "A Call for Community-based Suicide Preven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6(2). 147-164.
- Zhang, J. & Jin, S. (1996). "Determinants of Suicide Ideation: A Comparison of Chinese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31(122). 451-468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Sook-Hee Jung(Handong Global University)

Myung Hee Jun(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s a risk factor and a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as a protective factor in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research, total 499 christian students attending a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participated in a survey from a Christian college. The survey result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sub-categories of stress factor, family relation and identity issues were the most predict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s a risk factor, while participation in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mediated as a protective factor. The finding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tress influenc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n the level of depression partially increased suicidal ideation. However, attending the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a protective factor, decreased stress levels of students and alleviated suicidal ide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a program, such as the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 which can relieve stress levels of college students, addressing current social concern about college students' suicide.

Key Words: Christian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stress, depression, community leadership training